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 분류 및 영향 요인 검증: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교육 참여 차이

최효식¹, 연은모^{2*}

¹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²영남대학교 교양학부

An Analysis of Teacher's Job Stress: Differences i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al Involvement

Hyo-Sik Choi¹, Eun Mo Yeon^{2*}

¹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²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의 초등학교 교사 70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에 기초했을 때 4개의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프로파일(직무스트레스 하 집단, 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 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 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관련 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 중 최종 학력과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중 갈등 영역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이 다른 잠재계층보다 아동과의 갈등 수준은 높지만,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특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latent profil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b stress and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relative variables to determine these classifications.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based on the classification were discussed. Data from 709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11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8 were analyzed b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ur subgroups c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b stress: low-level job stress group, mid-level job stress group, mid-level administrative work stress group, and mid-level relationship and guidance stress group. Second, the final education and average time to work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groups. Third, teacher-student conflict and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subgroups. Specifically, the mid-level relationship and guidance stress group reported the highest conflict level with children and the lowest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These findings suggest promoting relief and preventative training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overcome various job stress.

Keywords : Job Stres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al Involvement, Elementary School, Latent Profile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Eun Mo Yeon(Yeungnam University)

email: emyeon@ynu.ac.kr

Received March 8, 2021

Accepted June 4,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교사는 양육자, 상담자, 훈육자, 지식정보전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효능감[2], 직무만족도[3], 삶의 만족도[4,5], 소진[6], 학교조직 효과성[7], 우울, 경험회피[8], 교사-학생 관계 인식[9], 학생의 학교적응[10]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이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및 결과 변인 탐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학생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잠재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특성 및 패턴이 교사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 또한 직무스트레스 특성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다수는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및 학생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김효정, 허봉운[6]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에는 관리자 관계, 학생 관계, 동료 관계, 학생지도, 직업적 대우가 있다. 구본용, 김영미[11]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에는 학생, 학부모 문제행동, 수업 중 학생문제행동, 인사제도, 업무환경, 학생지도가 있다. 교사는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관리자와 관계, 학생 지도의 어려움, 업무 특성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효능감[12], 소진[13],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14,15], 삶의 만족도[4]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16], 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교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7].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직업정체성,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 역량을 부분매개로 개인적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학교적응뿐 아니라[10], 교사-학생 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9].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은 성별, 교직 경력, 학력 등과 관련성이 있지만, 연구 결과는 학교급 및 심리적 구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보람, 박영숙[19],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은진[20]에 따르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업무과다 및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반면, 구본용, 김영미[11]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21],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추승희, 고재천[23]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만족은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으며,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가 적은 교사보다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학생 관계는 학생의 자아존중감[24], 학업열의 및 그릿[25],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26].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학생관계가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보다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종단 연구에 따르면, 교사-학생 관계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교우관계 변화를 예측할 뿐 아니라[28],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의 교사-학생 관계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부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30], 자녀생활역량[31], 학업성취도[32]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3]. 특히 류방란 외[34]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학교신뢰도,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학부모 교육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35]. 교사가 자신의 교사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의 학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

수록 학부모 참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교사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증진되는 경향성이 있다[37]. 즉,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가 학교(교사)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때 촉진된다[38].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2) 잠재계층 분류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가?
- 3)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될 예정이며, 2018년 11차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된다[39]. 본 연구에서는 학교 업무 스트레스의 응답 자료가 있는 초등학교 교사 70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학교 업무 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에서 학교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4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질문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1점)~‘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4개 문항은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39].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32$ 이다.

2.2.2 교사-아동 관계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에서는 담임 교사가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ianta[42]의 교사-아동 관계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척도는 친밀(Closeness) 7문항과 갈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친밀 ‘○○(이)는 나와서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갈등 ‘○○(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9].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친밀 $\alpha=.876$, 갈등 $\alpha=.841$ 이다.

2.2.3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질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1점)~‘항상 참여한다(5점)’ 중 하나에 응답,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질문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1점)~‘매우 관심이 많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39].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21$ 이다.

2.2.4 교사 배경 변인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여교사(0), 남교사(1), 교사 연령은 만 나이, 교사 경력은 근무 년수, 최종 학력은 초대졸(2,3년제졸)(1), 대졸(4년제 이상)(2), 석사과정(3), 석사(4), 박사과정(5), 박사(6)이다.

2.3 분석 방법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 구분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 셋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40].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교사 522명(73.6%), 남교사 187명(26.4%)이며, 연령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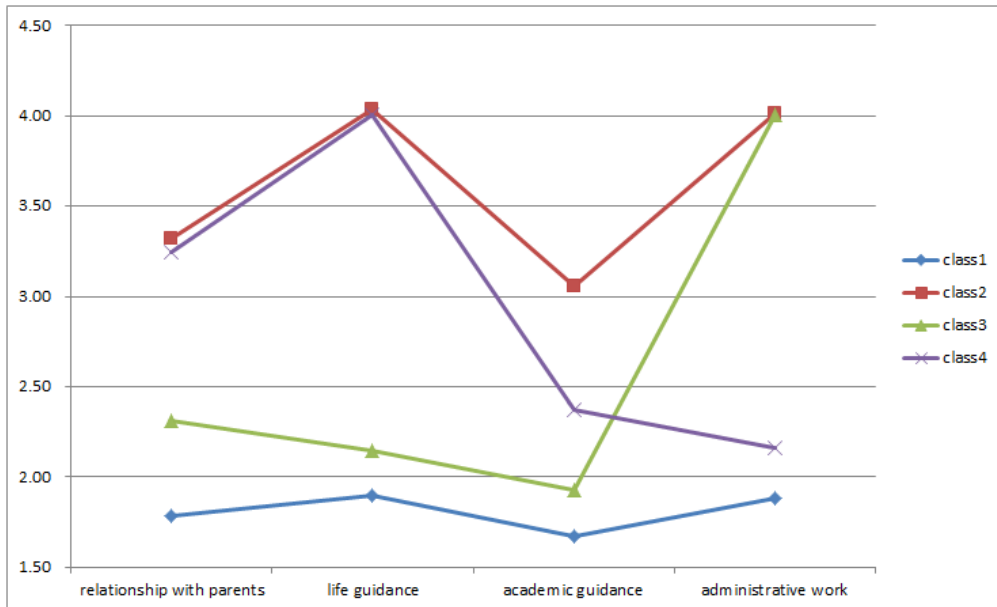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Female	522	73.6
	Male	187	26.4
Age	20-29	151	21.3
	30-39	242	34.1
	40-49	222	31.3
	50-59	90	12.7
	60<	4	.6
Work experiences	1-9	273	38.5
	10-19	278	39.2
	20-29	116	16.4
	30-39	37	5.2
	40<	5	.7
Education	College	9	1.3
	University	465	65.6
	Master course	64	9.0
	Master	161	22.7
	Doctoral course	4	.6
	Doctor	6	.8

20대 151명(21.3%), 30대 242명(34.1%), 40대 222명(31.3%), 50대 90명(12.7%), 60대 4명(.6%), 경력은 1-9년 273명(38.5%), 10-19년 278명(39.2%), 20-29년 116명(16.4%), 30-39년 37명(5.2%), 40년 이상 5명(.7%)이다. 최종 학력은 초대졸(2,3년제졸) 9명(1.3%), 대졸(4년제 이상) 465명(65.6%), 석사과정 64명(9.0%), 석사 161명(22.7%), 박사과정 4명(.6%), 박사 6명(.8%)이다.

3.2 직무스트레스 잠재계층 분류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시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은 ① 학부모와의 관계, ② 생활지도, ③ 수업지도, ④ 행정업무이다.

최적의 프로파일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가 2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정보준거지수, LMR LRT(p), BLRT(p), Entropy, 잠재계층의 고유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프로파일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파일 수가 4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은 .83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Class 1: low-level job stress group, Class 2: mid-level job stress group, Class 3: mid-level administrative work stress group, Class 4: mid-level relationship and guidance stress group

Fig. 1. Profile plots

Table 2. Tests of model fit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AIC	8179.526	8115.748	8041.180	7984.079
BIC	8238.856	8197.897	8146.149	8111.867
SABIC	8197.578	8140.743	8073.118	8022.960
Entropy	.854	.738	.804	.767
LMR LRT(p)	.0000	.0156	.0001	.0000
BLRT(p)	.0000	.0000	.0000	.0000
class 1(%)	38.4	33.6	26.0	29.6
class 2(%)	61.6	45.7	44.4	8.9
class 3(%)		20.7	11.7	14.2
class 4(%)			17.9	21.4
class 5(%)				25.8

각 프로파일의 전반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프로파일 명을 명명하였다. 먼저, 잠재계층 1에는 184명(26.0%)이 포함되었다. 잠재계층 1은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모두 4개 프로파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하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잠재계층 2에는 315명(44.4%)이 포함되었다. 잠재계층 2는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모두 4개 프로파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3에는 83명(11.7%)이 포함되었다. 잠재계층 3은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행정업무는 높은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4에는 127명(17.9%)이 포함되었다. 잠재계층 4는 수업지도, 행정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3 잠재계층 분류 영향 요인

잠재계층 분류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Table 3. Three-step results for antecedents of classes

Variable	Reference group: Class 1(low-level job stress group)					
	Class 2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Female: 0)	-.039	.255	.506	.361	-.184	.355
Age	-.043	.043	-.045	.077	-.052	.058
Experience	-.009	.044	-.003	.078	.005	.059
Education	-.325**	.115	-.163	.191	-.163	.162
Average work time	.027**	.010	.021	.013	.015	.011
Variable	Reference group: Class 2(mid-level job stress group)					
	Class 1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Female: 0)	.039	.255	.545	.323	-.145	.336
Age	.043	.043	-.002	.048	-.009	.028
Experience	.009	.044	.006	.049	.013	.031
Education	.325**	.115	.162	.179	.162	.164
Average work time	-.027**	.010	-.005	.012	-.012	.010
Variable	Reference group: Class 3(mid-level administrative work stress group)					
	Class 1		Class 2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Female: 0)	-.506	.361	-.545	.323	-.690	.378
Age	.045	.077	.002	.048	-.007	.048
Experience	.003	.078	-.006	.049	.007	.049
Education	.163	.191	-.162	.179	.000	.202
Average work time	-.021	.013	.005	.012	-.007	.01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four-class profiles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al involvement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omfortable	Class 1	4.196	.060	3.016
	Class 2	4.130	.045	
	Class 3	4.183	.085	
	Class 4	4.046	.072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onflict	Class 1	1.227	.040	7.730 (1,2,3<4)
	Class 2	1.273	.037	
	Class 3	1.279	.063	
	Class 4	1.477	.078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	Class 1	4.057	.073	12.675** (4<1,2,3)
	Class 2	3.880	.055	
	Class 3	3.978	.117	
	Class 4	3.603	.110	

* $p < .05$, ** $p < .01$, *** $p < .001$

※ Class 1: low-level job stress group, Class 2: mid-level job stress group, Class 3: mid-level administrative work stress group, Class 4: mid-level relationship and guidance stress group

R3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 결과,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월 평균 근무 시간이 많을수록 잠재계층 1(직무스트레스 하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2(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차이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Table 4 참조). 분석 결과,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중 친밀 영역은 차이가 없는 반면, 갈등 영역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4 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증상 집단)이 잠재계층 1(직무스트레스 하 집단), 2(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 3 집단(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보다 교사-아동 관계에서의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은 잠재계층 1, 2, 3집단이 잠재계층 4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특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했을 때 어

떤 잠재프로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 분류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에 따라 4개의 고유한 프로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직무스트레스 하 집단(84명, 26.0%)'은 4개 프로파일 중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모두 가장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315명, 44.4%)'은 4개 프로파일 중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모두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은 행정업무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83명, 11.7%)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은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127명, 17.9%)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특성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직무스트레스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먼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잠재계층 1(직무스트레스 하 집단)의 비율(26.0%)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 2(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의 비율(44.4%)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업지도와 관련된 직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동일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행정업무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과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소진 및 시간 부족은 수업 준비 및 교원 역량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교사가 학부모와 관계의 어려움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느낄 때 학부모 및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특히 학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한 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촉발되어 학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41].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 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다양한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듈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 중 최종 학력과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월 평균 근무 시간이 많을수록 잠재계층 1(직무스트레스 하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2(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재교육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시간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교사 소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중 갈등 영역

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이 다른 잠재계층보다 아동과의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이 다른 잠재계층보다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아동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잠재계층 2집단(직무스트레스 중상 집단)보다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측면에서만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의 교사-아동 관계에서의 갈등수준이 더 높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의 경우 다른 직무스트레스보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자신의 직무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생활지도 측면이라고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 교사-아동 관계가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27],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아동 관계가 중학교 시기까지의 교우관계 및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28, 29]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주며[34],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33].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교사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학부모가 환영받는다 고 지각할 때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데[37, 38],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업지도, 행정업무 영역보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잠재계층 4집단(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중상 집단)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에 기초했을 때 4개의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

프로파일(직무스트레스 하 집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 행정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 학부모와의 관계-생활지도 관련 직무스트레스 증상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계층 분류에 초등학교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최종 학력, 월 평균 근무 시간 중 최종 학력과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중 갈등 영역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을 탐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교사-아동 관계 및 학부모 교육 참여 수준을 확인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아동 관계, 학부모가 인식한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X. Song, M. Zheng, H. Zhao, T. Yang, X. Ge, H. Li, T. Lou, "Effects of a four-day mindfulness intervention on teachers' stress and affect: A pilot study in Easter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1, 1298, 2020.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0.01298>
- [2] J. M. Park, J. H. Kwon, "The effects of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mediated effect of job stress and teacher 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5, pp.307-329, 2016.
- [3] S. B. Lee, "The influence of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tress, teachers'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3, pp.317-337, 2014.
- [4] D. H. Kwon,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teachers'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grit,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4, No.3, pp.209-228, 2018.
DOI: <https://doi.org/10.14333/KJTE.2018.34.3.209>
- [5] H. J. Cho, "Mediating effect of the savoring belief and emotion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eacher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9, No.1, pp.111-131, 2020.
DOI: <http://dx.doi.org/10.20497/jwce.2020.9.1.111>
- [6] H. J. Kim, B. U. Ha,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social support,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 job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Vol.21, No.2, pp.245-267, 2019.
- [7] S. H. Kim, J. Y. Uhm, "Moderate effect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secondary school teacher's job stress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0, No.2, pp.215-249, 2014.
- [8] H. S. Hwang, J. Y. Lee, J. Y. Jang,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depression in secondary school teache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0, No.2, pp.495-515, 2012.
DOI: <https://doi.org/10.25152/ser.2012.60.2.495>
- [9]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job stress, teacher-student human relationships and school life stress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10, No.1, pp.127-148, 2016.
- [10] S. R. Kim, J. Y. Park, H. J. Cho, "The influence of teachers'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and job stress on the adjustment of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 No.4, pp.137-157, 2012.
- [11] B. Y. Khu, Y. M. Kim, "A relationship am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stressors, psychological burnout, and teacher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7, pp.275-306, 2014.
- [12] A. Gonzalez, M. L. Peters, A. Orange, B. Grigsby, "The influence of high-stakes testing on teacher self-efficacy and job-related stres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Vol.47, No.4, pp.513-531, 2017.
DOI: <https://doi.org/10.1080/0305764X.2016.1214237>
- [13] J. H. Park, C. S. Ha,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2, pp.569-582,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569>
- [14] B. J. Min, B. J. Kim, "Influence of job embeddedness and job stress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mediated by job attitud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1, No.4, pp.25-48, 2013.
- [15] K. T. Kim, K. M. Choi, "A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and stress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3, No.2, pp.201-225, 2015.
DOI: <https://doi.org/10.18230/tive.2015.23.2.201>

- [16] M. A. Steinhart, S. E. Smith Jaggars, K. E. Faulk, C. T. Gloria, "Chronic work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ssessing the mediating role of teacher burnout",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Vol.27, No.5, pp.420-429, 2011.
DOI: <https://doi.org/10.1002/smi.1394>
- [17] R. Harmsen, M. Helms-Lorenz, R. Maulana, K. van Veen, "The relationship between beginning teachers' stress causes, stress responses, teaching behaviour and attrition", *Teachers and Teaching*, Vol.24, No.6, pp.626-643, 2018.
DOI: <https://doi.org/10.1080/13540602.2018.1465404>
- [18] D. H. Ahn, N. R. Kim, "Influences of teacher stress on teacher competency and personal accomplishmen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ltigroup differences on gender",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1, No.3, pp.273-295, 2015.
DOI: <http://dx.doi.org/10.14333/KJTE.2015.31.3.273>
- [19] B. R. Kim, Y. S.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s stress management in relation to work environment with job engagement and burnout respectivel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0, No.3, pp.199-208, 2012.
- [20] E. J. Kim, "The effect of teacher mindfulness on job stress and burnout", *Stress*, Vol.26, No.3, pp.208-214, 2018.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8.26.3.208>
- [21] H. S. Lim,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the middle school teachers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teaching experiences, academic degree, and gender",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0, No.1, pp.99-122, 2009.
- [22] J. Y. Lim, S. L. Do, "The effects of teachers'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burnout and teacher-eficac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1, No.1, pp.197-220, 2014.
- [23] S. H. Chu, J. C. Koh, "The effect of head teacher's emotional leadership on the same grade teacher's job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Vol.20, No.1, pp.107-127, 2013.
- [24] H. H. Won, M. Y. Hwang, H. J.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eache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cholast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30, No.1, pp.195-218, 2020.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30.1.202003.195>
- [25] J. Y. Choi, H. J. Lim,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 pp.921-950,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1.921>
- [26] S. Y. Jang, J. Y.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friends,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A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1, No.4, pp.203-234, 2020.
- [27] E. J. Park, W. Y. Shim,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4, No.1, pp.285-310, 2005.
- [28] H. H. Chung, H. N. Kim, "Trajectories of early adolescent school-based peer relationships: Predictor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Vol.37, No.3, pp.73-99, 2019.
DOI: <https://doi.org/10.22327/kei.2019.37.3.073>
- [29] H. H. Chung, "Trajectorie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externalizing,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4, No.1, pp.245-266, 2016.
- [30] B. S. Lee, "The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on children's academic stress: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through career matur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7, pp.147-177, 2017.
- [31] S. J. Lim, S. K. Jeon, "The influence of middle-high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8, No.4, pp.123-137, 2016.
DOI: <http://dx.doi.org/10.19031/ikheea.2016.12.28.4.123>
- [32] J. Y. Chung, Y. H. J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levels on the student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7, pp.73-93, 2015.
- [33] S. R. Kim, S. H. Lee, Y. J. Koo, K.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4, pp.139-154,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4.139>
- [34] B. R. Ryu, J. W. Hwang, K. A. Kim, H. N. Lim,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chool parents' participation on school satisfaction, school reliabi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9, No.2, pp.169-193, 2019.
DOI: <https://doi.org/10.32465/ksocio.2019.29.2.006>
- [35] Y. H. Joo, "An analysis on the policy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schooling",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27, No.4, pp.57-86, 2020.
- [36] K. V. Hoover-Dempsey, O. C. Bassler, J. S. Brissie, "Parent involvement: Contributions of teacher efficacy, school socioeconomic status, and other school characteristic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4, pp.417-435, 1987.
DOI: <http://dx.doi.org/10.3102/00028312024003417>
- [37] B. A. McBride, "Preservice teachers' attitude toward

- parental involvement”, *Teacher Education Quarterly*, Vol.18, No.4, pp.57-67, 1991.
- [38] K. V. Hoover-Dempsey, J. M. T. Walker, H. M. Sandler, D. Whetsel, C. L. Green, A. S. Wilkins, K. Closson,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106, No.2, pp.105-130, 2005.
- [39] <http://panel.kicce.re.kr>
- [40]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41] Y. J. Lee, K. S. Kim, “A case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stress caused by mobile communication with paren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4, No.1, pp.25-50, 2017.
DOI: <http://dx.doi.org/10.24211/tjkte.2017.34.1.25>
- [42] R. C. Pianta,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Odessa, FL: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2001.
-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